

백남준, 그의 삶과 예술적 여정

백남준아트센터

글 문예진 사진 조채은



- ①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인 백남준아트센터
- ② 백남준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제1전시실
- ③ 율곡(2002년), 율곡 이이를 형상화한 로브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생전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예술가이자 과학자이며, 철학자이자 엔지니어였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미디어아트의 개척자로서 그만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한 백남준의 삶과 예술을 기억하고자 2008년 경기도와 백남준이 함께 건립했다.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박물관 바로 옆에 위치하며 주변의 한국민속촌, 경기국악원과 함께 용인 G-뮤지엄파크를 형성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여러 겹의 거울 구조로 되어있는 웅장한 외관은 긴 곡선을 이루는데, 이는 피아노를 자주 활용했던 백남준 작가의 작품들처럼 그랜드피아노를 표현한 것이다. 그는 생전 백남준아트센터를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 불렀다. 그의 생애와 작품, 그가 전하고자 했던 미래의 사유가 건물 안과 밖에 존재하고 살아 숨 쉰다. 그가 오래 살았던 집이자 살아 숨 쉬는 집, 오래도록 살아갈 집을 천천히 걸어본다.

두 개의 전시관, 열 개의 이야기

입구의 거울 문을 밀고 들어가면 곧바로 제1전시실이다. 제1전시실에서는 지난봄부터 <사과 씨앗 같은 것>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전시는 백남준이 태어난 1932년부터 그가 타계한 2006년까지의 일생이 정리된 연보와 29점의 작품, 생전의 백남준과 인연이었던 16인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프로젝트로 이뤄졌다. 각 인터뷰는 영상과 함께 이어폰이 준비되어 있어 그들의 기억 속 백남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보고 듣고 참여하는 전시 속, 백남준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한 발짝 더 깊이 다가가 본다.

제1전시실을 벗어나 2층으로 올라가면 제2전시실이다. 제2전시실에서는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이어받아 동시대의 다른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활동과 작품을 연구 및 수집하는 것을 하나의 미션으로 하고 있다.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전시는 그 연장선으로, 아홉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한다. 피아노와 인터뷰, 비디오와 드로잉, 퍼포먼스와 인공지능 등 저마다의 흐르는 시간이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



미래를 사유하는 예술가

전시 관람을 마치고 입구의 액세스홀에서 상영하는 <우리 시대의 명인, 백남준>을 감상한다. <우리 시대의 명인, 백남준>은 1992년에 제작한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MBC 다큐멘터리이다. 다큐멘터리에서 백남준과 그의 가족, 미국의 큐레이터들은 백남준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들려준다. 또한 그가 뉴욕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으로 행위예술을 하는 모습, 뉴욕 작업실에서 피아노와 텔레비전을 연결하여 연주하는 모습 등 그의 다양한 일상을 연이어 보여주며 현재의 관점에서 그의 삶을 바라볼 기회를 준다.

33분 46초의 러닝타임 끝에 백남준은 특유의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죽고 나서 비디오미술관을 운영하는 데 쓰려고...”라 말한다. 30여 년 전 그가 소망했던 비디오미술관에 앉아 그의 지난 생애와 미래를 듣는다. 새로운 미디어인 비디오의 잠재성에 주목했던 아티스트 백남준. 그가 네모난 프레임에 잡아둔 시간과 그려온 미래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에 함께한다. 🍷



④ 제1전시실에서 29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⑤ 네모난 프레임에 잡아둔 백남준의 시간

⑥ TV물고기(1975). 어항과 텔레비전을 중첩시킨 작품